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0호 [국제 제25183호] 주제 105 (2016)년 2월 9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주체의 우주강국,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국력을 만리대공에 펼쳐가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었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원만군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우주에 펼쳐는 자랑찬 쾌사이다.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국력을 무변광대한 우주에 펼쳐가시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만리대공에 밝은 빛을 뿌리는 주체위성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아래 다져진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위력,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낳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원만군민에게 천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8일에 진행되었다.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광장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주체의 위성강국의 주인된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 온 15만여명의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강국건설념을 빛나게 실현하시며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우주에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대회에는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상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상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관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라는 구호관들과 선전화들, 《경축》이라는 글자들이 세워져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의 구호들과 《철사옹위》, 《일심단결》이라고 쓴 글판을 드러운 대형기둥들이 세워져있었다.

광장주변 건물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무궁무늬 번영할 김정은 장성조선의 배역을 앞당겨나가자!》, 《백두산대국》, 《최후승리》 등의 구호와 글판들, 당기, 공화국기가 드리워져있었다.

기발제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뉘고있었다.

김정일 동지, 황명사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박영식 동지, 리명수 동지, 양형섭 동지, 김원철 동지, 박법기 동지, 오수용 동지, 김정태 동지, 모두철 동지, 조연준 동지와 김일성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주석단에 나

연설자들은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두산대국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태양조선의 새봄을 부르는 정일봉의 우피소리라도 같이 천지를 진감하며 솟구쳐오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또다시 온 누리에 빛내인 특대사건이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원만군민의 심장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열화같은 애국의지로 끓게 하는 전인민적대경사이라고 말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2월의 맑고 푸른 봄날에 새겨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은 우리 우주파학자, 기술자들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와 존엄높은 우리 당, 우리 국가의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총정의 선물이며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정책의 위대한 승리의 결정체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가 대지를 박차고 성과적으로 발사된 오늘날의 대경사는 백두산대국의 자주적권리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신한 한 힘있게 과시하고 전체 조선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믿음의 신심과 격발을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경화적인 위성을 개발하고 리용하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공화국의 정성당당한 자주적권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광명성》호는 앞으로도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로 계속 기세차게 날아오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란는 총정교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정교비하여 새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대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최세의 선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천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정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수령의 유년총정전, 당정책위원에서 원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령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건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유익적명군제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가리키는 한방향을로만 나아갈것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당의 문명강국건설위업을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당부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1211기지로 내세워주시고 과학으로 세대의 꽃문을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명심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지역자강의 정신으로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우주파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떠래워 최첨단과학기술의 밤마루를 청년들이 앞장에서 점령해나가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의 직전장들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적인 활약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우주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에 대한 불란는 총정교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돌격, 총대진함으로써 새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해나갈데 대하여 명심하였다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더더욱 환희로운 조국의 대경사

민족의 영광과 긍지로 차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2월 8일, 우리 인민의 민족명절 설명절인 동시에 정규직혁명무력이 장외발전된 뜻깊은 기념일이다.

경사에 경사가 겹친 이날 아침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향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여느때없이 크나큰 격정을 안은 인민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어제 그렇지 않았다.

경사로 온 2월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 발사소식이 전해졌었다.

이 아침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마을 달리는 사람들이 어제 평양시민들뿐 아니라,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뿔뿔이 달리고 있었으리라.

자그마한 성과도 여기에 안고오면 기쁨은 더욱 커지고 영광과 행복도 여기 태양의 성지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들께 아뢰이면 그 무게가 감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민이다.

그러니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뵈어 맞이한 인민의 마음이 어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바다처럼 설레이지 않겠나.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고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선도하는 기지이며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입니다.》

각종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울리고 있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 발사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부름처럼 만세의 환호를 울렸을 겁니다. 그때의 격동적인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인민대무군의 어느 한 구본대 병사들은 온몸을 부르짖어 울었고 이 아침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오는 길에 나갔다고 하였다.

그들과 함께 길을 다그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리움의 바다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 가슴에 새겨 넣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에 절절한 그리움이 어렸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5천년민족사의 대경사를 체험한 인민의 환희는 기쁨과 긍지는 어찌 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오늘의 이 대경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천만군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이 안겨 왔다.

우리 수령님 날마다우에 찾아오신 서해감문을 웃으시었던 날에도 그렇듯 환하게 웃으셨다.

서해감문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세계적인 기적들을 부러워하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경탄하였



었다.

그 기적과도 같은 조선의 국력의 원천은 바로 자강력이었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안고 암흑강을 건너신 때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수령님들께서 가장 크게 믿으셨던 것은 자강의 힘, 우리 인민의 힘이었고 그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셨다.

백두정맥에 내뿜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연전투쟁정신으로 강도 일제에게 조선민족의 본래를 보여주시었고 건국의 초창기에서도 그 정신으로 인민을 불러 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꿈까지 멀어붙은 한 회의장에 울려 퍼진 그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전쟁을 앞에 두시고도 자력갱생이라는 또 하나의 승리의 열쇠를 끈근히 틀어잡고 계시었기에 우리 수령님들께서는 온전히 웃으셨다.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들께서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셨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시었다.

이 땅에 울린 자력갱생의 마지막 울림은 또다시 미제의 면상을 후회라 감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전진실속의 천리마를 현실에 불러냈다.

그 천리마에 다시 한번 자력갱생의

박차를 가하시 우리 조국은 단숨에 도약하여 사회주의공업국가의 대문을 열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현실들은 기적과도 같으면서도 온 세계가 우리의 이름을 전진속의 천리마와 더불어 천리마조선이라 부를 것 아니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혁명의 면알음을 내다보시고 민과우에서 조국과 민족앞에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 놓으신 만고의 대성인격인 인민이 드리는 최대의 영광이 세차게 끊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와 만년 중앙기관의 한 일꾼은 말하였다.

《오늘 이렇게 태양의 성지에 오니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선의 정신으로 심어 주신 자력갱생이 새 세기에 또 조선의 넘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며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줄이겨집니다.》

우리의 추억을 위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행세를 다지신 봉산산으로 이끌었다.

봉산산, 그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들께서 다지신 땅에서 울려 오나.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음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야 조선야 너를 빛내리

... 봉산산의 언덕은 높지 않아도 숭고한 뜻을 신념으로 안으셨기에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휘황찬란한 조국

의 머나먼 앞만을 내다보시며 환히 웃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승리의 열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강국건설의 위대한 보검으로 억세게 붙여 주셨다.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강국건설실수상을 펼쳐주시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 다스리며 애국헌신의 장정을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그 길에서 새겨진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기계가 새겨서 치던 전철의 땅위에 CNC공작기계의 바다가 펼쳐

졌다. 《광명성》호위성들이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력으로 선군조선의 이름을 하늘가에 써 놓았고 막강한 국력을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 나날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넘으로, 신념으로 되었고 우리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듯이 아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자력갱생으로 민족민족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으시고는 부신 영광과 존엄을 우리 조국의 오늘에 없애 주시었다.

우리는 경에 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축복은 백두산대군에 차고 넘친다는 전력을 뜨겁게 새겨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축복해 주시어 우리 조국의 대경사는 더더욱 환희롭다는 것을 실명평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실감하여 우리는 점도록 인민들의 물결속에 있었다.

글 현사기자 한 영민 사진 현사기자 리 동 균

그것을 한껏 떨치는 인민의 모습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환하신 태양의 미소로 축복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 인민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위대한 천신의 자욱들을 뜨겁게 새겨보며 고타음을 눈물짓는다.

새로운 주제 100년의 첫해에 실용위성의 성과적 발사를 위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안고 이곳으로 들어서시던 우리 원수님의 발자취도 보일듯, 평원혁명사적지에서 하시던 신념의 선언도 들릴듯...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높이 드신 자력갱생의 불은 기록을 오늘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에서 자력갱생의 기적으로 더욱 힘차게 휘날리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침대로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은 최상의 높이에서 세세대대 굳건할 것이라는 천만군민의 확신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새겨져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랬던가 대한수만을 용용하여 서있는 군기수들을 형상한 군상과 나팔을 부는 녀성위주악대군상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우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성의 기쁨비, 승리의 상징으로 안겨 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정신이 우리의 국력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도록 하여 주신 경에 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숭고한 작정속에 삼가 더듬어보게 하고 그 위대한 불에 안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을 후럽게 덥혀주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우리는 경에 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축복은 백두산대군에 차고 넘친다는 전력을 뜨겁게 새겨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축복해 주시어 우리 조국의 대경사는 더더욱 환희롭다는 것을 실명평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실감하여 우리는 점도록 인민들의 물결속에 있었다.

우주에 우리의 공화국기가 휘날린다

배일, 배 시각 경이적인 사변들로 흥분될 경사의 해, 이 땅에 또다시 천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사변이 정면히 펼쳐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일성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불은 기적의 신념과 의지가 빛나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켈드전입 완결성공.

천하제일강국을 피상하는 우리 조국은 또 한번의 장운으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을 마차로 앞두고 장렬한 승리의 속포를 좌출리었다.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슴벅찬 희열을 받아안았다.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은 우리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엄을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다.

광활한 우주에로 뻗은 장대한 백두산대군의 과학기술중성정력과 무적막강한 국력을 만장악하고 케도를 따라 도는 우리의 주제 위성.

눈으로는 창공높이 날으는 우리의 위성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천 만 군 민 은 《광명성-4》호, 그 맹렬한 발사속도처럼 민족사의 꿈이고 리상인 사회주의강성국가 시시각각의 눈앞에 다가오는 황홀한 모습을 보았고요! 광활한 우주에서 휘날리는 우리의 사방인 공화국기, 그 장중한 필릭인소리를 실감으로 절경하고 있었다.

선군으로 가쁜 주령정 열매를 한창 수확하는것과도 같은 희한한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긍지가 천민의 심장을 격동시킨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룩할 수 없는 승리를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천하제일강국 김정은 동지.

항상 자신만만하고 언제나 이기는 위인의 눈이여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당당히 말한다.

위인의 눈이여 신념의 눈이여, 태양의 눈이여, 실천의 눈이여라고.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 그는 조선의 혁명가들은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불은 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신념의 길에서 0.001mm의 탈선도 허용치 않으시는 신념의 최강자이시었다.

오늘의 경이적인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한성이 스며있고 숭고한 열정이 어려있는 혁명의 불은 기를 최후승리, 최후승리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엄을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은 끝 신념이며 신념이 없으면 혁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의 피상이며 끝인 사변적인 일은 비관이라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령은 신념이 좌우한다.

한번 다진 맹세, 한번 택한 목적, 한번 들어선 실천의 길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비범한 정지가 불모신 혁명은 백전백승한다.

물러보면 태없는 풍판으로 어느 하루 조용한 날이 없는 세계이다. 그 소용돌이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휘말려들어 결국 망하여 할 진통을 겪고있는 것인가.

세계가 어떤 바람을 타고 표류하던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이 땅, 이 하늘아래 인민의 의지를 굳게 세우고 리상을 받드시 안아오시려는 것이 경에 하는 우리 원수님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신념이다.

김정은동지의 정신과 기적은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 그대로이다. 그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어떤 때는 나도 탄복할 정도이다.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어떤 때는 나도 탄복할 정도이다.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어떤 때는 나도 탄복할 정도이다.

이 땅에 울린 자력갱생의 마지막 울림은 또다시 미제의 면상을 후회라 감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전진실속의 천리마를 현실에 불러냈다.

그 천리마에 다시 한번 자력갱생의

우리의 추억을 위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행세를 다지신 봉산산으로 이끌었다.

봉산산, 그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들께서 다지신 땅에서 울려 오나.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음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야 조선야 너를 빛내리

... 봉산산의 언덕은 높지 않아도 숭고한 뜻을 신념으로 안으셨기에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휘황찬란한 조국

의 머나먼 앞만을 내다보시며 환히 웃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승리의 열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강국건설의 위대한 보검으로 억세게 붙여 주셨다.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강국건설실수상을 펼쳐주시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 다스리며 애국헌신의 장정을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그 길에서 새겨진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기계가 새겨서 치던 전철의 땅위에 CNC공작기계의 바다가 펼쳐

졌다. 《광명성》호위성들이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력으로 선군조선의 이름을 하늘가에 써 놓았고 막강한 국력을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 나날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넘으로, 신념으로 되었고 우리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듯이 아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자력갱생으로 민족민족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으시고는 부신 영광과 존엄을 우리 조국의 오늘에 없애 주시었다.

우리는 경에 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축복은 백두산대군에 차고 넘친다는 전력을 뜨겁게 새겨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축복해 주시어 우리 조국의 대경사는 더더욱 환희롭다는 것을 실명평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실감하여 우리는 점도록 인민들의 물결속에 있었다.

글 현사기자 한 영민 사진 현사기자 리 동 균

우리의 기억을 위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행세를 다지신 봉산산으로 이끌었다.

봉산산, 그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들께서 다지신 땅에서 울려 오나.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음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야 조선야 너를 빛내리

... 봉산산의 언덕은 높지 않아도 숭고한 뜻을 신념으로 안으셨기에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휘황찬란한 조국

의 머나먼 앞만을 내다보시며 환히 웃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승리의 열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강국건설의 위대한 보검으로 억세게 붙여 주셨다.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강국건설실수상을 펼쳐주시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 다스리며 애국헌신의 장정을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그 길에서 새겨진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기계가 새겨서 치던 전철의 땅위에 CNC공작기계의 바다가 펼쳐

졌다. 《광명성》호위성들이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력으로 선군조선의 이름을 하늘가에 써 놓았고 막강한 국력을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 나날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넘으로, 신념으로 되었고 우리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듯이 아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자력갱생으로 민족민족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으시고는 부신 영광과 존엄을 우리 조국의 오늘에 없애 주시었다.

우리는 경에 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축복은 백두산대군에 차고 넘친다는 전력을 뜨겁게 새겨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축복해 주시어 우리 조국의 대경사는 더더욱 환희롭다는 것을 실명평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실감하여 우리는 점도록 인민들의 물결속에 있었다.

우리의 기억을 위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행세를 다지신 봉산산으로 이끌었다.

봉산산, 그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들께서 다지신 땅에서 울려 오나.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음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야 조선야 너를 빛내리

... 봉산산의 언덕은 높지 않아도 숭고한 뜻을 신념으로 안으셨기에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휘황찬란한 조국

의 머나먼 앞만을 내다보시며 환히 웃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승리의 열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강국건설의 위대한 보검으로 억세게 붙여 주셨다.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강국건설실수상을 펼쳐주시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 다스리며 애국헌신의 장정을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그 길에서 새겨진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기계가 새겨서 치던 전철의 땅위에 CNC공작기계의 바다가 펼쳐

졌다. 《광명성》호위성들이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력으로 선군조선의 이름을 하늘가에 써 놓았고 막강한 국력을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 나날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넘으로, 신념으로 되었고 우리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듯이 아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자력갱생으로 민족민족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으시고는 부신 영광과 존엄을 우리 조국의 오늘에 없애 주시었다.

우리는 경에 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축복은 백두산대군에 차고 넘친다는 전력을 뜨겁게 새겨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축복해 주시어 우리 조국의 대경사는 더더욱 환희롭다는 것을 실명평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실감하여 우리는 점도록 인민들의 물결속에 있었다.

글 현사기자 한 영민 사진 현사기자 리 동 균

우리의 기억을 위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행세를 다지신 봉산산으로 이끌었다.

우리의 기억을 위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행세를 다지신 봉산산으로 이끌었다.

봉산산, 그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들께서 다지신 땅에서 울려 오나.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음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야 조선야 너를 빛내리

... 봉산산의 언덕은 높지 않아도 숭고한 뜻을 신념으로 안으셨기에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휘황찬란한 조국

의 머나먼 앞만을 내다보시며 환히 웃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승리의 열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강국건설의 위대한 보검으로 억세게 붙여 주셨다.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강국건설실수상을 펼쳐주시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 다스리며 애국헌신의 장정을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그 길에서 새겨진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기계가 새겨서 치던 전철의 땅위에 CNC공작기계의 바다가 펼쳐

졌다. 《광명성》호위성들이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력으로 선군조선의 이름을 하늘가에 써 놓았고 막강한 국력을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 나날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넘으로, 신념으로 되었고 우리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라났듯이 아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자력갱생으로 민족민족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으시고는 부신 영광과 존엄을 우리 조국의 오늘에 없애 주시었다.

우리는 경에 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축복은 백두산대군에 차고 넘친다는 전력을 뜨겁게 새겨 넣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에서 한 축하연설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의 축하연설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2월의 밝고 푸른 봄날날에게 새겨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활출한 비행은 우리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 조진호동지의 지휘와 지도하에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입니다.

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국력을 우주의 만리대공에 펼쳐가시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시며 우리모두의 운명이요 조진호동지의 과학기술정책의 위대한 승리의 결정체입니다.

아름다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조선인민군대의 지구관측위성부대장인 김기남동지를 축하합니다.

주제의 위성 《광명성-4》호가 대지를 박차고 성과적으로 발사된 오늘 민족사건대경사는 백두산대국의 지구관측위성부대장인 김기남동지를 축하합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새해 벽두부터 우주로 진출시키는 특대사건들이 다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것이적인 성과들은 과학기술이라는 기둥을 앞세우고 우리 조국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주제의 위성강국으로 빛내어가는 것은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신 김정은동지의 지휘를 더욱 높고 해주시고 태양의 존엄을 더욱 빛나는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원들의 투쟁과 헌신과 애국적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토대로 하여 우주정복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었으며 우주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결연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백두산악같은 무비의 당력과 명철한 지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화국의 실용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팽창한 우주공간으로 추구처우를 있게 되었습니다.

선군조선의 막강한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광명성-4》호가 우주에 치달아 오름으로써 우리 인민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하늘에 닿았고 온 나라에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약동하는 기상과 활력이 더욱 가득 차넘치고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위성을 개발하고 리용하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 인민의 정정당당한 자주적권리입니다.

미세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접고들며 《도전》요, 《위협》이요 하고 도발장을 부리지만 주제의 위성들은 앞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로 계속 기세차게 날아 오를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대원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실감없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만리마를 타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면서 어제의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지 강산을 변모시켜나가는 전례없는 기적과 창조적 대진성기입니다.

우리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실정의 박동을 맞추며 수명의 유륜판결정, 당정책을위전에서 천만군민의 입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총공적에서 사상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자강적열의주의를 뼈속까지 새긴 정신력의 강자들로 분분히 준비시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거어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제의 핵강국, 당당한 우주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진전을 위하여 힘차게 뛰어나가겠습니다.

주제의 우주강국, 김일성, 김정일조선 만세!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통찰력을 힘있게 벌여 조진호동지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당의 문명강국건설수상을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갔습니다.

전체 인민군대원들은 우리 공화국을 만대하는 군사적도발을 일삼으며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는 미세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추시하며 능력이 조금이라도 음모한 한다면 즉시 달려나가 씨종자도 없이 모조리 축착쳐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대업을 만대하는 군사적도발을 일삼으며 침략의

우리 백두산혁명군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진두에 높이 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백승의 명도따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겠다는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의 축하연설

태양조선의 새봄을 부르는 백두산 정일봉의 우리소리와의 같이 천지를 진감하며 솟구쳐오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온 누리에 빛내인 특대사건이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적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실망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열혈같은 애국의지로 끓게 하는 전인민적대경사입니다.

온 세계를 세차게 휘젓는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강국건설철학을 빛나게 실현하시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우에 높이 올려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가 안아온 자랑한 결실입니다.

우리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강국건설수상을 하루빨리 실현한 불타는 총정과 애국열, 투쟁열로 심정의 피를 끓이며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연구개발하고 성과적으로 쏘아올림으로써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채단으로 변이 나는 내 나라에 또 하나의 큰 사변을 안아왔습니다.

여러가지 원리수준으로 농업신뢰와 자연피해상황, 기상자료와 같은 지구의 다양한 정보를 정확히 얻어내고 전송하여주는 지구관측위성을 보유하게 된것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키는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됩니다.

또 한차례의 인공지구관측위성사를 통해 우리는 최첨단수준에 오른 주체과학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한겨울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소한 편차도 없이 지구관측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우리의 위성운반기술과 로켓제조기술이 매우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것을 다시한번 웅언으로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진과 부강언명을 달가워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속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또다시 온 세계가 보란듯이 쏘아올린 위성이기에 오늘의 성공이 더욱 극진하고 자랑스러운것입니다.

주제위성의 성과적발사를 통하여 인공지구관측위성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는 그 누구도 감히 침체할수 없다는것을 만방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관리를 밝은 빛을 뿌리는 우리의 위성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고귀한 응결체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악랄한 반공화국살해책동은 단호히 쳐잡으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강성변명의 길을 따라 줄달음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신념의 필연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반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주체강국의 자랑찬 미래가 있다는 혁명신념의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사옹위하며 과학기술성공으로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갔습니다.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1211고지로 내세워주시고 과학으로 세태의 첫문을 열어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숭고한 의도를 명실하고 백두의 혁명신념과 백두의 칼바람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해결해 나기며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생산성비와 원료, 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접고들며 도전과 도발에 매여달릴수록 우리 식의 새로운 위성들을 편이 쏘아올림으로써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앞으로 계속 당당히 행사해나갈것입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제위성이 하늘을 누비는 우주강국의 지식인민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더 훌륭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하여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건설수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갔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백두의 당,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위대한 승리의 만세!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축하연설

동지들! 선군조선의 불멸의 존엄과 위력을 세계 만방에 떨치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는 소식에 힘찬 우리 인민군대원들은 하늘, 땅, 바다로까지 울려퍼진 만세를 부르며 끝없는 환희의 격정을 넘쳐있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대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인공지구관측위성 및 발사국의 지위를 더욱 높고 해주시고 태양의 존엄을 더욱 빛나는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원들의 투쟁과 헌신과 애국적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적전에 힘차게 떨쳐나선 역사적인 시기에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신 김정은동지의 지휘를 더욱 높고 해주시고 태양의 존엄을 더욱 빛나는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원들의 투쟁과 헌신과 애국적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주정복의 앞길을 열어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고귀한 총성의 선물, 사랑하는 우리 인민과 이 땅의 후손대대를 위한 승리의 열매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 심신을 다 바치시며 크나큰 의욕과 열정을 다하여 오신 주제의 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우리 인민군대원들의 애국적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우주개발권리를 빼앗으려고 미쳐달리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면상을 다시한번 보기 좋게 후려갈린 제7차대회의 패자인 인공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통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오른 불굴의 지구대국, 최강의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대국인 동시에 21세기의 명마를 활하여 전진속의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과학기술강국, 우주강국이라는것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만대하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발악은 달을 보고 쫓아대는 하루장이의 황웅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떤 《세력》도, 《위협》도 백두산봉대에 떠날들려 평명의 미래에 곧바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을 한치도, 한순간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개는 짚이도 행렬은 나아가며 목표를 향하여 발사된 포탄은 되돌려세울수 없습니다. 머지않은 앞날에 세계는 조국통일과 부강변명의 웅대한 목표를 이룩한 위대한 김정은강성대국의 모습을 경관과 부리속속에 똑똑히 보게 될것이며 천수만민이 손잡고 백두의 돌풍과 엄혹한 시련속에서 백두산대국의 단결력과 자강력을 기운 선군조선은 인류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앞장서 거어이 안아올것입니다.

자주와 정의, 평화의 가장 국악한 교상자, 침략의 현혹인 미세와 그 추종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늘들이 이미 과신된 대조선적대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 우리의 위성발사를 구실로 온갖 약선과 부당한 《세력》, 《압력소동》을 불어온다면 그것은 제 목을 조이고 자기의 미망한 종말을 앞당기는 결판

을 가져올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했듯이 주제조선의 자주적권리와 신성한 리의를 달관한것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지지도 모르며 오직 죽시킴으로써 비한 불타는마로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고야 말겠다는것이 우리 백두산봉대의 엄숙한 경고이며 드림없는 필경사입니다.

우리의 이 줄편인 선고를 귀담아들지 않고 선군조선이 추도하는 대세에 역행한다면 대당전선 《아메리카제국》도, 지구상 그 어디에 숨어있는 침략자, 도전자도 백두산봉대의 보복의지로 반향당되고 정의 수소탄과 최정거리탄으로까지 정미한 우리 인민군대의 막강한 위력을 대는 살아숨쉬지 못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앞으로 당의 명도따라 생보검을 앞장서서 쫓아내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과 믿음직한 최후대, 역적의 지지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원들은 조국과 인민의 인제군 수명정착수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총대마에 더 깊이 새기고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닦쳐와도 강대한 조선의 기상이고 단결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규수상대당군진을 똑똑히 사수하는 천정만명의 현연요새가 되겠습니다.

주체혁명위업수명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령체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혁명적군중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자강적열의주의를 높이 들고 4대강국화목과 3대과업을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축하연설

주제조선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자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힘찬 우리 청년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만리대공으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기쁨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넘치고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군대원들이 특기할 오늘이 이 격동적인 사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조국, 주제조선의 무적막강한 위력과 양양한 절도를 다시 한번 확신했으며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선군혁명의 참모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최후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주제의 위성이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다가올 날과 달과 또 어떤 경이적인 사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는지 생각만 해도 모자도 가슴이 울렁거리습니다.

주제조선의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오늘의 대경사를 통하여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평명의 미래에 꼭꼭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만천하에 선언하였습니다.

온 나라를 일대 민족적경사로 부글부글 끓이면서 하고있는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우리는 주제조선의 자주적인 수소탄시형성공을 접고들며 비변정을 돈구는 적대세력의 면상에 다시한번 가슴후련히 강라를 안겼습니다.

우리는 진감시 이 경이적인 대경공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영원한 자주의 강국, 창조적 강국, 주제의 우주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자주의 신념과 강철의 담력, 현명한 명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습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는 명실공히 백두의 천수만민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필경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최강의 핵보유국에서 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함께 우주강국

의 청춘이라는 값높은 영예와 존엄을 가슴가득히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군대원들이 특기할 오늘이 이 격동적인 사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조국, 주제조선의 무적막강한 위력과 양양한 절도를 다시 한번 확신했으며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선군혁명의 참모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최후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주제의 위성이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다가올 날과 달과 또 어떤 경이적인 사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는지 생각만 해도 모자도 가슴이 울렁거리습니다.

주제조선의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오늘의 대경사를 통하여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평명의 미래에 꼭꼭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만천하에 선언하였습니다.

온 나라를 일대 민족적경사로 부글부글 끓이면서 하고있는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우리는 주제조선의 자주적인 수소탄시형성공을 접고들며 비변정을 돈구는 적대세력의 면상에 다시한번 가슴후련히 강라를 안겼습니다.

우리는 진감시 이 경이적인 대경공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영원한 자주의 강국, 창조적 강국, 주제의 우주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자주의 신념과 강철의 담력, 현명한 명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습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는 명실공히 백두의 천수만민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필경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최강의 핵보유국에서 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함께 우주강국

우리는 전체 조선청년들의 운명이요 미세이시며 삶과 행복의 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결같은 방탄벽을 쌓고 당중앙을 댈 양에서 절사옹위하며 그 어떤 천지공과에서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청년전위대가 되겠습니다.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과 존엄은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의 가장 깨끗한 총성의 선물을 드린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따라매워 최첨단과학기술의 명마도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서 점령하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의 격진장투마에서 새로운 영웅 청년전위대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무엇한 조국수호, 혁명모위정신을 지니고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뿌린 날릴수록 우주로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두리에 굳게 굳어 강성변명의 휘황한 태양을 앞당겨 나가는 우리 청년대군의 전진속도는 더욱 가속화될것이며 우리의 자주적존엄과 합법적권리를 감히 건드려려는자들은 그 누구이든, 그 어디에 있든 우리 조선청년들의 호연 정발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자주의 신념과 강철의 담력, 현명한 명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최강의 핵보유국에서 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함께 우주강국



— 김 일 성 방 장 예 시 —

— 주 제 사 상 함 방 장 예 시 —

백두산대국의 봄하늘가에 러져오른 우주정복의 축포성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민족사적대경사로운 나라 장산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설레이고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머치는 로동당만세소리는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꽃집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지구관측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경의이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경에서 이룩한 자랑한 쾌승이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8일 저녁 주체사상탑이 솟아 있는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인덕, 옥류교 등 수도의 곳곳은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친 민족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환희의 축포가 러져오른 순간을 기다리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장군님을 댁으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축의 불꽃라들이 러져올랐다.

우주의 만리대공에 새겨지는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이 갖가지 구슬같은 불꽃들에 실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무지개로 펼쳐진듯 명명하는 불빛과 더불어 러져오르는 장엄한 축포성은 하늘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은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괄해서 강성변명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벽전벽후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발사성

공으로 하늘에 차넘치는 선군조선의 환희인양 경축의 축포가 끝없이 러져올라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백두산대국의 또 하나의 승리를 경축하는 환희의 불꽃라들은 관중들의 심장마다에 비범한 애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주체의 우주강국건설의 만년대를 마련하여주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이어서 과학기술의 기반자로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져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명도가 있어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세의 당과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위상은 무변광대한 우주의 한끝까지 빛을 뿌리게 되였다.

황홀한 불의 세계를 바라보며 군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태양조선의 새로운 100년사를 보다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이 이르렀다.

각양각색의 고품관들이 러쳐올린 환희, 만감의 불꽃라들이 울려져내려 천하를 천색만색으로 찬란히 물들이는 수도의 하늘가에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가리마 백두산으로》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경축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갓가지 조화를 부리며 천만민화하는 장대한 불꽃라들을 보면서 군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리에서 입심단결하여 주체혁명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이 세상에 없음을 철폐로 새겨안았다.

양동하는 젊음으로 새기를 주물잡으며 비약하는 조국의 기상을 안고 하늘높이 러져오르는 경축의 불꽃라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서 새로운 기적을 펼쳐갈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여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축포발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따라 당당한 우주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래양상에

뜻깊은 2월 8일과 설명절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로 또다시 민족사적대경사에 휩싸인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뜻깊은 2월 8일과 주체105(2016)년 설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민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며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의의 정이 만수대인덕으로 꽃피어

왔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반,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시계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씌어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어 불세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양의 모습을 우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혁명무력건설과 선군혁명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대학, 김일성정치대학,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쳐갈 불타는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모서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대양상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대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진제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변명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쳐갈 불타는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황홀한 우주정복에 당은 강대한 조선의 무궁무진한 힘과 기세의 일대 과시로 되는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로 온 나라가 환희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8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세계가 보란듯이 화들짝고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친 커다란 민족적경의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흥성하였다.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경축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위성의 연속적인 발사로 우주강국건설의 개척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주시고 최후승리를 향한 천민의 대오에

참가자들은 주체위성의 연속적인 발사로 우주강국건설의 개척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주시고 최후승리를 향한 천민의 대오에

참가자들은 주체위성의 연속적인 발사로 우주강국건설의 개척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주시고 최후승리를 향한 천민의 대오에

참가자들은 주체위성의 연속적인 발사로 우주강국건설의 개척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주시고 최후승리를 향한 천민의 대오에

참가자들은 주체위성의 연속적인 발사로 우주강국건설의 개척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주시고 최후승리를 향한 천민의 대오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직맹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다.

답사행진대원들은 3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출발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이번 답사과정을 통하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깊이 조야하고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역풍이 몰아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닌 사상의 장차들로 온전히 준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답사기간 항일의 전구마다에 आरो세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전걸히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혁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행진대원들은 오늘도 항일의 포연서린 군복차림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종합체실을 들은 다음 보천보전투지휘부와 우편교, 민사부소, 소방화관 등을 돌아보았다.

보서리샘물과 증동동판을 거쳐 리명수혁명사적지, 평북부영지를 찾은 그들은 시명부자리, 우동봉자리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전통들의 백옥같은 충정과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다

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찾아온 행진대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로부터 항일전적의 충포성을 자랑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어린시절을 보여주시는 사적물들을 앞에서 보며 자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뜨거운 격정을 감지 못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직맹일군들의 결의모임이 백두산절세위인들앞에서 있었다.

모임참가자들은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동지에게 무궁무진한 당의 믿음과 인제나 잊지 않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한 그 기쁨, 그 본래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집단적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강성조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삼지연대기념비 참관을 통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전통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다함없는 열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백혈골들의 투쟁모습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들은 오늘도 절세위인의 명활무쌍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달력을 전설처럼 전하고있는 감투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당의 청년정치적위력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장조물로 거역히 일떠세우려 백두산절세위인들앞에서도 참가하였다.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정년친화가 창조된 발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야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번 앞장에서 받들며 강성조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답사행진기간 그들은 혁명전적지관리사업을 도와주었으며 혁명가요대렬합창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